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6-35호
(2026.10.16.)

IITP

AI·ICT Brief



CONTENTS

주요 이슈 01
1. AI 도입 확대와 성과의 간극, AX 전환의 성공 조건 01

주요국 동향 14
1. 미국, 60억 달러 이상 규모 과학 이니셔티브 패키지 발표 14
2. 중국 '신질생산력 발전 의견' 발표, 기술 자립과 투자 통제 병행 18

ICT 부문별 모니터링 23

주요 ICT 행사 일정 25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주요 내용

주요 이슈

AI 도입 확대와 성과의 간극, AX 전환의 성공 조건

- AI가 에이전트로 발전하며 기업의 활용 범위는 업무 전반으로 확대됐으나, 개인의 작업 효율 개선과 달리 기업의 사업 성과 개선은 제한적이어서 도입 확대와 성과 사이의 간극 지속
- 이러한 간극은 활용 빈도 중심의 적용 대상 선정과 전후 단계 단절, 산출물 검토 부담과 자율 실행 감독 미흡, 도입 이후 지원 부족에 따른 부담의 개인 집중 등 운영상 제약에서 비롯
- 선도기업은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흐름을 재설계하고, 판단 특성에 따라 위임 범위와 사람의 개입 시점을 정하며, 검증·수정을 조직이 분담하고 기여를 인정해 활용 정착과 성과 창출로 연결
- 따라서 기업은 투자·평가 기준을 사용량에서 검증된 업무 성과로 바꾸고, 정책 지원도 도구 보급과 교육을 넘어 현장의 지속 개선 역량과 조직 지식 축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주요국 동향

미국, 60억 달러 이상 규모 과학 이니셔티브 패키지 발표

- 백악관은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과학 이니셔티브를 통해 SI 인프라·인재 확충과 국가 전략 연구과제·연구조직 개편을 함께 추진
- '25년 11월 출범한 제네시스 미션과 민간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 임무형 연구와 연구지원 체계 개편을 병행

중국 '신질생산력 발전 의견' 발표, 기술 자립과 투자 통제 병행

- 중국 당·정이 과학기술 혁신 주도의 신질생산력 발전 행동지침 공동 발표('26.10.9.) △핵심기술 자립 △'AI+' 확산 △맹목 투자 차단 △인내자본 확충 4대 조치로 자립 가속과 과열 억제 병행
- 기업 주도 기술 과제와 선립후파·간부 문책이 병존해 육성·단속 간 균형이 집행 관건이며, AI 경쟁 축의 단말·현장 이동에 맞춰 국내 산업계의 중국 전략 재점검과 규범 대응 필요

문의처 동향분석팀 : 허창회 수석 TEL. 042-612-8243 Email. tareheo@iitp.kr

Ⅰ. 주요 이슈

1 AI 도입 확대와 성과의 간극, AX 전환의 성공 조건

AI 활용은 에이전트로 확대됐으나 기업 성과는 운영 방식에 따라 분화

AI 활용이 개별 작업 지원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확장

- AI는 개별 작업을 돕는 도구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를 활용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업무에 통합한 조직도 1년 새 2배 이상 증가

  * 에이전트를 업무 흐름에 통합했다는 응답은 '25년 13%에서 '26년 30%로 증가 (BCG, '26.6.)

- 기업들은 에이전트를 활용해 반복 업무와 처리시간을 줄이는 한편,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와 고객 대응 역량을 넓혀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활용 확대
- 다만 에이전트는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무는 조직이 많고 전사 확산 수준도 챗봇보다 낮아, 도입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조직 전체의 업무에 정착하는 정도는 아직 제한적

  * 전사 확산 비율은 챗봇 47%, 에이전트 약 20%이며 대형 기업(40%)과 중소 조직(22%) 간 격차도 존재 (McKinsey, '26.8.)

개인의 작업 효율은 높아졌지만, 기업 전체의 사업 성과는 제한적

- 맥킨지 조사에서 응답자의 80%는 AI로 개인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답했으나, 기업 영업이익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37%에 그쳐 작업 효율 개선에 비해 기업의 재무 성과는 제한적
- AI 활용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영업이익 기여 수준과 고성과 기업 비중은 전년과 비슷해, AI 도입과 활용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기업 전체의 사업 성과 개선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 '26년 5~6월 97개국 1,719명 대상 조사에서, 영업이익의 5% 이상을 AI 효과로 보고 그 영향이 '상당하다'고 평가한 고성과 응답 비중은 약 6%로 전년과 동일 (McKinsey, '26.8.)

- 맥킨지 경영진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개인의 효율 개선과 조직 성과 간 간극을 지적 (Business Insider, '26.10.)

AI 도입과 함께 업무 흐름과 운영 체계를 바꾼 기업에서 성과 차이 발생

- AI 고성과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업무 흐름 재설계 비율이 3배, 경영진의 적극적 관여와 성과 측정 체계 구축 비율은 2배 높아 업무·조직 운영에서 차이를 보임 (McKinsey, '26.8.)
- AI가 개별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더라도 검토·승인·후속 처리 등 기존 업무 단계가 그대로면 새로운 병목이 발생할 수 있어, 작업 효율 개선이 업무 전체의 성과로 이어지는 데 한계
- 따라서 개인의 작업 효율이 기업 성과로 확산되지 못하는 제약 요인과 이에 대응해 업무 운영 방식을 조정한 기업 사례를 살펴보고, 작업 효율을 사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AX 전환 조건을 도출할 필요

AI 도입 효과의 조직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과 성과 전환의 조건

01 (간극 진단) AI 활용의 성과 확산을 제약하는 업무·조직 운영상의 문제

AI 활용은 확산됐지만 투자 효과가 확인된 업무는 일부에 집중

- '26년 AI를 정기 사용하는 현장 직원은 74%로 과거 약 50%에서 증가했으며, 이 중 42%가 주당 8시간을 절약했다고 답해 개인 작업의 시간 절감 효과가 확인 (BCG, '26.6.)
- AI 투자 효과가 일부 과제에서만 확인된 기업은 48%인 반면, 여러 과제에서 폭넓은 성과를 거둔 기업은 28%에 그쳐, AI 활용 효과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 (Dun & Bradstreet, '26.7.)
- 한편, 미국 기업 고위 임원의 98%가 토큰 비용 등으로 AI 도입 방식을 재검토했다고 답해, 시간 절감 효과와 별개로 실제 비용 부담을 고려한 투자 효과 검증도 주요 과제로 부상 (EY, '26.7.)

  * EY는 'AI가 시간을 아낀다'는 설명만으로 더 이상 충분한 사업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 (EY, '26.7.)

(업무 선정·흐름) 도입이 활발한 업무와 투자 효과가 확인된 업무에 차이

- 가트너 조사에서 AI 도입이 많은 업무와 투자수익이 높은 업무의 순위가 달라, 활용 빈도보다 비용 절감 가능성과 투자 효과를 기준으로 AI 적용 업무를 선정할 필요 (Gartner, '26.9.)

  * IT 부문에서 도입이 많은 위협 탐지·서비스 데스크 자동화(각 54%)는 긍정적 수익을 보고한 리더 비율 상위에 들지 못했고, 자산·비용 최적화(40%)가 1위 (Gartner, '26.9.)

- AI 적용 대상을 잘 선정해도 데이터 연계가 부족하면 후속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우며, 전사적 AI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완전히 준비된 기업은 6%에 불과 (Dun&Bradstreet, '26.7.)
- 이에 따라 AI가 개별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더라도 산출물을 후속 단계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대기·재작업이 발생하는 구간이 그대로 남아, 작업 효율의 개선이 업무 효율로 확산되는 데 한계

(판단 권한) AI 산출물 증가로 검토 부담은 커지지만 실행을 감독하는 체계는 미흡

- AI 산출물을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직원들은 검토·수정에 추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결과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면서 판단과 의사결정 부담이 증가

  * BCG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안팎이 AI 산출물의 검토·수정과 지시에 쓰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충분한 결과'의 기준이 높아졌다는 응답 60%, 의사결정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41% (BCG, '26.6.)

- 반대로 사람의 개입 없이 에이전트가 작업을 끝까지 실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나, 승인되지 않은 에이전트를 파악하지 못하는 조직도 적지 않아 실행 범위를 감독하는 체계는 미흡

  * 에이전트 사용 조직의 85%가 일부 시스템을 실시간 개입 없이 실행하고 26%는 승인되지 않은 에이전트를 탐지하지 못하며, 응답 조직의 36%는 데이터 손실 등 실질적 피해를 경험 (EY, '26.9.)

- AI 산출물의 검토 부담과 에이전트의 자율 실행이 함께 늘면서, 기존 승인·감독 체계만으로는 검토가 지연되거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우려

(개선 지속) 도입 이후 검증·수정과 기술 지원 부담이 AI 활용 정착을 제약

- MIT 연구에 따르면 AI 도입 후에도 산출물 검증·오류 수정과 모델 변경에 따른 업무 조정이 반복돼, 초기 구축 이후에도 운영 인력의 추가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 (MIT Sloan, '26.9.)
- 그러나 도입 이후의 기술 지원과 재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직원들이 새로운 역량을 요구받으면서도 업무 중 발생하는 오류와 활용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지속

  * 직원의 72%는 요구 역량이 달라졌다고 느끼나 재교육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6% (BCG, '26.6.)

- AI 도입 이후 검증·수정과 기술 문제 해결을 기존 담당자가 병행하면 추가 업무가 누적돼, 초기 활용 경험이 일부 인력에 머물고 조직 전체의 지속적인 AI 활용으로 확산되는 데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

⇒ AI 도입 성과는 적용 대상 선정의 문제와 업무 단계의 단절, 검토·감독 부담, 후속 지원 부족 등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필요

02 (사례 분석) 업무 선정·판단 권한·개선 지속의 조정 방식이 활용 성과를 좌우

(1) 업무 선정·흐름: 업무 재설계와 대상 발굴로 개별 작업의 효율을 전체 흐름으로 확장

(마이크로소프트) 업무 단계와 승인 절차부터 에이전트에 맞게 재설계

-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공급망의 계획·조달·이행·물류에 에이전트를 도입하면서, 개별 작업의 자동화에 앞서 업무 목표와 병목을 기준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재설계
- 공급망 전문가와 엔지니어는 불필요한 승인·인계 단계를 줄이고 공통 데이터 기반을 마련했으며, 계획·조달·물류 업무에 100개 이상의 목적별 에이전트를 배치
- 그 결과 월간 공급망 계획 수립 기간은 약 10영업일에서 2.5영업일 미만으로 줄고 수요 분석 범위도 넓어졌으나, 이러한 개선이 기업 전체의 비용 절감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는 미확인

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급망 업무 선정 및 재설계 흐름

구분	주요 내용
① 목표·업무 선정	- 공급망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연·반복 작업·수작업 대조 등 개선이 필요한 업무 발굴
② 업무 흐름 분석	- 계획→조달→이행→물류 전 과정의 업무 단계, 인계·승인 절차와 병목 파악
③ 불필요 절차 제거	- 중복 업무와 불필요한 승인·인계 단계 정리
④ 공통 데이터 구축	- 모든 에이전트가 동일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단일 신뢰 데이터 기반 마련
⑤ 성과 확인 개선	- 계획 수립과 수요 변화 분석 시간 단축 확인, 추가 시나리오 분석과 위험 대응에 활용

자료: Microsoft, "Becoming a Frontier Firm"('26.9.) 참고하여 재구성

(우버) 문서에 없는 수작업을 현장 관찰로 발굴해 자동화 대상 선정

- 우버는 개발 조직에서 확인한 AI 에이전트 활용 효과를 재무·법무 등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여러 시스템을 오가는 수작업이 기존 업무 문서에 드러나지 않아 자동화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
- 이에 AI 활용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가 현업 전문가의 업무를 이틀간 관찰하고, 업무 규모 등을 기준으로 자동화 대상을 선정한 뒤 담당자와 함께 개발·검증
- 그 결과 예산 배분 시간은 15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으며, 우버는 개별 작업의 자동화보다 업무 흐름을 함께 재설계한 점이 이러한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

* 우버는 효과가 흐름 전체의 재설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확산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 중 (Uber CTO, '26.7.)

표 우버의 '에이전틱 포드' 10일 업무 선정 및 구현 절차

일차	활동	기준
1~2일	현업 전문가 업무 관찰, 단계별 문서화	(-)
3일	자동화 대상 우선순위 결정	규모, 반복성, 사업 영향, 데이터 확보 가능성
4~5일	담당자와 공동으로 에이전트 구축	(-)
6~9일	동일 업무 담당자 여러 명 대상 검증	일반화 가능성, 실제 업무 개선 여부
10일	검증된 에이전트 배포	(-)

※ AI 숙련 엔지니어 약 30명을 현업 전문가와 1:1로 배치해, 2개월간 16개 부서에서 16개 포드 운영
자료: Uber CTO LinkedIn('26.7.), Business Insider('26.7.) 종합하여 재구성

(오디세이 로지스틱스) AI로 기존 시스템을 개편하고 검증부터 실제 운영까지 연계

- 물류기업 오디세이 로지스틱스는 주문 접수와 운송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기존 프로그램의 업무 규칙을 유지하고 정해진 예산과 일정 안에 새 시스템을 실제 운영에 투입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 이에 코그니전트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기존 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정상 작동을 확인할 테스트와 배포 절차·기술 문서도 AI로 작성한 뒤 실제 운영에 투입
- 그 결과 코그니전트는 기존 방식보다 개발 처리량을 약 1/3 높였으며, 오디세이는 새 시스템을 실제 운영에 투입하고 기존 방식 대비 시스템 개편 비용을 37% 절감했다고 발표

표 오디세이의 AI 기반 기존 시스템 전환 절차

단계	주요 내용
① 사전 검증	기존 프로그램에 AI 개발 방식을 시범 적용하고 21일 만에 완료
② 전환 대상 확정	사전 실증을 바탕으로 주문 접수·운송 관리 시스템 개편에 AI 개발 방식 적용
③ AI 기반 개발	7명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기존 코드를 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램으로 전환
④ 검증·배포 준비	AI가 프로그램 코드와 함께 테스트, 배포 절차 및 기술 문서 생성
⑤ 사람의 검토·승인	기술 책임자·설계자가 모든 코드 변경 사항을 검토·승인한 뒤 반영
⑥ 실제 운영 적용	현재 개발 단계의 새 시스템을 실제 운영에 적용하고 후속 개편 지속

자료: Cognizant('26.9.)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AI 적용 대상과 후속 업무를 함께 설계해야 작업 효율이 업무 성과로 연결

- 마이크로소프트는 승인·인계 절차를 재설계하고 우버는 현장 관찰로 자동화 대상을 발굴했으며, 오디세이는 기존 코드 전환부터 검증·배포·운영까지 연결하는 등 업무별로 서로 다른 개선 방식을 적용
- 이들 사례는 AI 활용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성과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먼저 찾고, 데이터 연계와 후속 업무까지 함께 설계해야 처리시간 단축과 비용 개선 등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
- 다만 확인된 효과는 특정 업무의 처리시간 단축과 프로젝트 비용 절감으로, 절감 시간의 활용 결과와 다른 업무로의 확산 여부 등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 전체의 수익성 개선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2) 판단 권한: 업무 특성에 따라 승인 주체와 사람의 개입 시점 조정

(젤리피시) 사전 합의한 기준 아래 승인 권한을 외부 책임자에서 담당 엔지니어로 이전

- 젤리피시는 반복적인 코드 작업에 AI를 도입해 변경 건수가 늘었으나, 모든 변경 사항을 팀 외부의 코드 책임자가 승인하는 기존 절차가 유지되면서 검토 대기와 승인 지연이 발생해 개발 속도를 제약
- 이에 코드 변경 기준을 사전에 합의하고 AI를 활용해 코드 변경 작업을 수행한 엔지니어가 직접 승인하고 결과에 책임지도록 해 외부 책임자에게 집중된 승인 권한을 현장으로 이전

  * BCG는 이를 결정권과 책임을 함께 현장에 넘긴 사례로 소개했으며, BCG가 인터뷰한 AI 선도기업 50여 곳의 약 절반이 결정권을 현장으로 내렸다고 설명 (BCG, '26.9.)

- 그 결과 코드 변경의 승인·반영 기간이 3일→하루 이내로 단축됐으나, 권한 조정 이후 오류 발생률과 코드 품질의 변화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된 효과는 승인·처리시간 감소에 한정

표 업무 특성에 따른 판단 권한 및 사람의 개입 방식

업무·판단 특성	판단·승인 주체	사람의 개입 시점
① **규칙이 명확한 정형 업무**	AI 에이전트	사전 규칙 설정, 판단이 필요한 예외 발생 시 개입
② **반복적 코드 변경**	코드 작성 엔지니어	사전 기준 합의 후 건별 자체 승인, 오류 발생 시 책임
③ **되돌릴 수 있는 저위험 판단**	현업 담당자	개별 상급자 사전 승인 축소, 현장 자율 판단
④ **되돌리기 어려운 고위험 판단**	사전에 지정된 책임자	실행 전 검토·승인 유지

※ ①·③·④는 BCG가 제시한 AI 선도기업의 일반적인 판단 권한 배분 원칙이며, ②는 젤리피시의 실제 적용 사례

자료: BCG, How Companies Use AI to Redesign How Work Gets Done('26.9.) 참고하여 재구성

(DBS) 자료 준비는 에이전트에 맡기고 전문가는 검토·판단에 집중

- 싱가포르 DBS은행은 기업 고객 담당자의 업무시간 중 최대 40%를 차지하는 여신 심사서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최종 판단은 유지하면서 자료 수집과 초안 작성에 AI 에이전트를 도입
- 특화 에이전트가 관련 자료를 수집·종합해 심사서 초안을 작성하면 담당자가 고객·산업 정보를 보완하고 신용위험을 판단하도록 역할을 나눠, 전문가는 반복적인 자료 준비보다 검토·판단에 집중

  * DBS의 특화 에이전트는 자료 종합과 초안 작성 등 여신 심사와 관련된 70개 이상의 과업을 수행 (DBS, '26.8.)

- DBS는 심사서 작성 시간 30% 이상 단축을 목표로 150명 시범 운영을 거쳐 약 1,500명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절감 시간을 고객 협의와 신용위험 관리에 활용할 계획

  * 기업 고객 담당자는 고객 협의에, 신용위험 관리자는 대출 자산 전체의 위험 관리와 새로운 위험의 파악에 절감 시간을 활용하도록 계획 (DBS, '26.8.)

표 DBS의 업무 특성별 AI·사람 판단 권한 배분

업무·판단 특성	판단·수행 주체	사람의 개입 시점
① 정형적 자료 수집·정리	AI 에이전트	자료 확인 등 필요 시 개입
② 반복적 심사 초안 작성	AI 에이전트	초안 생성 후 담당자가 검토
③ 고객·산업별 맥락 판단	기업금융 담당자	초안 검토 중 추가 조사 요청·보완
④ 전문적 신용위험 평가	신용위험관리자	위험 요인 분석 및 심사 내용 검토
⑤ 최종 심사 판단	신용위험 전문가	최종 단계에서 사람의 판단 유지

※ ①~⑤는 DBS의 실제 업무 분담을 판단 특성에 따라 재구성한 것으로, 은행 내부의 공식 여신 승인 권한 체계를 의미하지 않음

자료: DBS, DBS scales agentic AI to transform way of working for corporate bankers('26.8.19.) 참고하여 재구성

(xAI) 내부 조사는 자율 수행하고 외부 발송·계약은 사람이 통제

- xAI는 미사용 소프트웨어와 중복 구매에 따른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구매 에이전트 'Haggle Bot'을 도입하고, 계약·사용 현황 조사와 구매 대안 검토, 담당자 확인까지 수행하도록 설계
- 특히 업무의 대외 영향과 재무적 책임에 따라 자율 실행·사전 승인·실행 금지로 권한을 구분하고, 사람은 대외 협의와 최종 구매 판단에 집중하도록 설계
- 그 결과 Haggle Bot의 판매처별 가격 비교·협상 지원으로 신규 직원용 장비 구매비가 한 건에서 58% 줄었으며, 미사용 소프트웨어 구독을 찾아 연간 환산 8만 5,662달러의 지출 감소도 보고

  * 58%는 개별 구매 건의 절감률이며, 구독 정리 금액은 월 단위 계약에 반영된 지출 감소를 연간으로 환산한 수치로 AI 구축·운영비를 차감한 순효과는 미공개 (xAI, '26.9.)

표 xAI 구매 에이전트의 업무별 판단 권한 및 사람의 개입 시점

권한 구분	AI 에이전트 수행 범위	사람의 개입 시점
① 자율 실행	지출·계약·사용량 조사, 내부 담당자 연락, 자료 정리·보고서 작성	사전 권한 설정 후 자율 수행, 필요시 결과 검토
② 매번 승인	공급업체에 보낼 가격 협상안·이메일 작성	외부 메시지 발송 전 매건 명시적 승인
③ 실행 금지	계약 서명, 구매·구독, 지출 승인 및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	최종 의사결정과 실행은 사람에게 유보

자료: xAI, "Setting Grok Bot loose on procurement"('26.9.) 참고하여 재구성

▶ 승인 축소보다 판단 주체와 개입 시점을 업무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

- 젤리피시는 담당 엔지니어에게 승인 권한을 넘겼고, DBS는 에이전트의 자료 준비와 전문가 판단을 구분했으며, xAI는 내부 조사와 외부 발송·계약의 승인 범위를 나눠 사람의 개입 시점을 조정
- 세 사례는 승인 절차를 단순히 줄이기보다 업무 특성에 따라 판단 주체와 사람의 개입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정한 기준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해야 함을 시사

  * BCG는 선도기업이 결정권을 직급보다 '기준을 미리 정할 수 있는지'와 '잘못돼도 되돌릴 수 있는지'로 구분한다고 분석 (BCG, '26.9.)

- 다만 젤리피시는 승인 기간 단축, xAI는 일부 구매비 절감이 확인됐지만 DBS의 시간 절감은 목표 단계이며, 권한 조정 이후의 품질·운영비 등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 전체 성과는 판단하기 어려움

(3) 개선 지속: 도입 이후 지원·보상과 개선 결과의 축적이 AI 활용 정착을 좌우

▶ (NE Health) 전담 인력을 두고 평가에 반영해 검증·수정 부담을 조직이 분담

- MIT가 2년간 추적한 NE Health(가명)는 업무 전문가에게 AI 개발 환경과 초기 교육을 제공했으나, 도입 이후 반복되는 검증·수정과 모델 조정이 현업 전문가의 추가 업무로 누적되는 문제에 직면
- 이에 우선 과제에 전담 기술 인력이 시스템 연계와 오류 해결을 지원하고, 공동 평가 기준으로 AI 결과를 검증하며 지식 공유 포럼을 통해 개선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현업 전문가의 추가 업무를 조직이 분담

  * 전담 기술 인력은 우선 과제의 시스템·업무 흐름 통합을 담당하며, 조직은 워크숍과 프롬프트 작성 경연(프롬프트톤)을 지속하고 위험 심사와 시스템 연계도 지원 (MIT Sloan, '26.9.)

- 또한 AI 실험과 개선 활동을 직무 책임 및 성과 평가·승진에 반영해 전문가 참여를 유도했으며, 그 결과 조직에서 활용하는 AI 솔루션이 141개로 증가

▶ (LegalCo) 교육 이후 지원·보상이 없어 부담이 개인에게 남고 참여가 중단

- 같은 MIT 연구의 법무법인 LegalCo(가명)도 NE Health와 마찬가지로 AI 실험 환경과 초기 교육을 제공했으며, 기술 접근성과 과제 적합성 등 주요 도입 여건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초기 교육 이후 기술 지원이 부족하고 AI 실험·개선 활동도 평가와 보상에 반영되지 않아, 전문가가 검증·수정에 필요한 추가 업무를 개인적으로 계속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
- 그 결과 전문가의 80% 이상이 AI 실험 참여를 중단하고 다수의 과제도 축소됐으며, 조직에서 활용하는 AI 솔루션은 3개에 그쳐 NE Health의 141개와 뚜렷한 차이를 보임

  * 연구진은 기술 지원과 기여 인정·보상이 부족하면 의욕적인 직원도 추가 업무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분석 (MIT Sloan, '26.9.)

표 MIT 추적 연구 대상 NE Health와 LegalCo의 도입 후 지원체계 비교

구분	NE Health (의료기관)	LegalCo (법무법인)
공통 출발점	보안 샌드박스, 교육, 전사 적용 과제 장려	동일 (AI 준비도·기술 접근성·규제·과제 적합성)
대상 과제	환자용 퇴원 요약	법률 리서치
지속 교육	워크숍·프롬프트톤 지속, 문서화 관행	초기 교육 후 지속 지원 제한
기술 지원	우선 과제 전담 기술 인력, 공식 위험 심사, 시스템·업무 흐름 연계 지원	지원 거의 없음
공동 평가·공유	공동 평가 기준, 지식 공유 포럼	언급 없음
기여 인정	직무 책임·성과평가·승진·출판·경력에 공식 반영	평가·보상에 미반영
결과	조직 내 활용 솔루션 141개, 참여 증가	솔루션 3개, 전문가 80% 이상 이탈, 과제 축소

자료: MIT Sloan('26.9.) 참고하여 재구성

(레노버) 전문가의 수정 내용을 모델 학습에 지속 반영해 개선 결과를 축적

- 레노버는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를 번역할 때 전문가가 같은 오류를 반복 수정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브랜드 표현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정 결과를 이후 번역에 재활용하는 AI 솔루션을 도입
- 레노버 편집팀은 AI 번역의 브랜드 표현·지역별 용어를 검토·수정하고, 릴트는 수정 결과를 후속 번역에 반영해 같은 오류의 반복과 사람이 직접 검토해야 할 콘텐츠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
- 그 결과 기존 공급업체 대비 연평균 번역비가 50% 이상 줄었다고 발표해, 내부 활용 정착을 보여준 앞의 두 사례에서 나아가 지속적인 개선에 따른 검토 부담 감소와 비용 절감까지 보고

* 절감률의 측정 기간과 번역량 보정 여부는 미공개이며, 공급업체 변경과 요금 차이도 포함돼 모델 개선만으로 발생한 비용 절감액을 구분하기는 어려움 (LILT, '26.6.)

지속적인 지원·보상과 개선 결과의 재활용이 AI 활용 정착과 성과 개선의 핵심

- NE Health는 기술 지원과 기여 인정으로 참여를 이어간 반면 LegalCo는 추가 업무가 개인에게 집중되며 참여가 줄어, 후속 지원·보상 체계가 AI 활용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 레노버는 전문가가 검증·수정한 내용을 이후 번역에 반영해 반복 작업을 줄였다는 점에서, AI 활용을 지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발생한 개선 결과를 축적·재활용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줌
- 다만 NE Health의 활용 정착과 레노버의 비용 절감에는 업무 특성과 공급업체 변경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 개선 활동만의 성과로 단정하지 않고 다른 요인도 함께 충분히 검토할 필요

⇒ 기업 사례에서 업무 재설계·권한 조정·지속 개선을 통한 처리시간 단축과 일부 비용 절감이 확인됐으나, 이를 기업 전체의 재무 성과로 확산하기 위한 운영·평가 조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

03 (전환 조건) 작업 효율을 사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업무 운영·평가 체계 재설계

(업무 선정·흐름) 개별 작업보다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하고 전후 단계 정비

- AI 적용 대상은 활용 빈도나 다른 기업의 도입 사례보다 업무 전체의 처리시간·반복성·사업 영향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자동화가 필요한 구간과 사람이 담당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
- 특히 AI 처리 이후 사람이 결과를 전달하거나 후속 작업을 지시하는 구간을 파악해 인계·승인 절차를 정비하고, 사람과 에이전트 간 데이터 전달 기준을 명확히 해 업무 흐름의 단절을 방지
- 도입 이후에는 개별 작업의 처리 속도보다 업무 시작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을 측정하고, 승인 대기와 재작업 등 병목이 반복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인·개선해 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

(판단 권한) 업무의 위험과 판단 특성에 따라 위임 범위를 정하고 책임 소재 명확화

- 업무별 위임 범위는 판단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 있는지, 오류 발생 시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사람과 에이전트의 결정·승인 권한을 명확히 설정
-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에게는 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수정 권한을 함께 제공하고, 에이전트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거나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책임자가 검토·승인하도록 절차를 마련

  * MIT는 AI 활용의 실패를 AI를 쓰지 않는 경우(불용), 자동화했으나 결과가 나쁜 경우(오용), 자동화는 작동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경우(과용)로 구분하고, 사람이 산출물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며 어떤 산출물을 신뢰할지 학습하도록 권고 (MIT Sloan, '26.9.)

- 권한 조정 이후에는 처리시간과 함께 오류 발생률, 재작업·예외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점검하고, 사후 부담이 커진 업무는 실제 운영 결과에 맞춰 위임 범위와 승인 기준을 다시 조정할 필요

(개선 지속) AI 운영에 필요한 검증·수정을 공식 업무로 반영하고 지원체계 마련

- AI 도입 후 반복되는 결과 검증과 오류 수정을 조직의 공식 업무에 포함해 담당자와 업무시간을 각각 정하고, 시스템 연계나 기술 문제는 전담 인력이 지원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
- 투자 계획에는 초기 구축비·이용료뿐 아니라 검증·수정 인력과 업무시간 등 추가 운영비를 포함하고, AI 적용 범위가 넓어질 때 늘어날 유지·관리 부담까지 고려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

  * 맥킨지는 AX 성공 기업에서 기술 1달러당 프로세스 재설계 3달러·조직 역량 구축 5달러의 투자 비율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BCG는 노력의 70%를 사람·조직·프로세스에 배분하도록 권고 (McKinsey, '26.8.; BCG, '26.9.)

- 검증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 원인과 해결 방법, 업무별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기록·공유해 다른 담당자가 재활용하고, 담당자나 AI 모델이 바뀌더라도 축적된 개선 결과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

  * NE Health의 공동 평가 기준·지식 공유 포럼이 이에 해당하며, BCG가 인터뷰한 AI 선도기업 5곳 중 4곳도 핵심 전문가의 지식을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기록 (BCG, '26.9.)

(평가 기준) 작업 효율과 사업 성과를 구분하고 실제 효과에 따라 투자 판단

- AI로 절약한 시간을 고객 대응·위험 관리 등 어느 업무에 활용할지 미리 정하고, 도입 이후에는 실제 업무 재배치와 성과 변화를 함께 확인해 시간 절감이 사업 성과에 기여했는지 평가할 필요

  * BCG 조사에서 AI를 정기 사용하는 현장 직원의 66%는 절감한 시간을 어디에 쓸지 지침을 거의 받지 못했고, 절반 이상은 그 시간을 전략적 업무에 재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 (BCG, '26.6.)

- AI 사용량이나 토큰 소비량 대신 구축·연계·이용료와 검토·재작업 비용을 함께 반영해 실질적인 투자 효과를 판단하고,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은 예산 상한과 정기 점검으로 관리할 필요

  * 우버는 코딩 도구(Claude Code)의 연간 예산을 '26년 봄 4개월 만에 소진했으나, COO는 토큰 사용 증가와 유용한 소비자 기능 증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Business Insider, '26.7.)

- 초기에는 작업별 처리시간과 오류율을, 이후에는 업무 전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최종적으로는 사업 기여도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의 확대·개선·중단을 결정할 필요

(참고) 코오롱베니트, 성과 중심의 업무 선정부터 운영까지 AX 전 과정을 연계

- 코오롱베니트는 AI 활용량보다 실제 업무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영 목표와 동떨어진 과제 선정과 데이터·업무 시스템 단절, 후속 운영체계 부재를 AX 성과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 ('26.10.)
- 이에 경영 목표와 성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 과제 3~5개를 선정하고, 데이터·업무 시스템 연계부터 조직·권한 정비, 성과 측정과 후속 운영까지 연결하는 6단계 AX 실행 전략을 제시
- 같은 행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선적서류 자동화 에이전트로 건당 처리시간을 4시간에서 5초로 단축한 사례를 공개했으나, 기업 전체의 비용·수익 개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표 코오롱베니트의 성과 중심 AX 6단계 실행 방법론

구분	주요 실행 내용	AX 전환 조건과의 관계
① 과제 선정	경영 목표와 예상 업무 성과를 고려해 우선과제 3~5개 선정	업무 선정·흐름
② 인프라 구성	필요한 규모의 클라우드·자체 인프라를 조합하고 분산된 업무 데이터 연결	업무 선정·흐름
③ 업무 재설계	생산·설비·품질 데이터의 관계와 업무 병목을 파악하고 AI 수행 업무와 사람의 판단 영역 구분	업무 선정·흐름 / 판단 권한
④ 조직 변화	AI의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접근 권한과 업무 규정 정비, 조직별 역할 조정	판단 권한 / 개선 지속
⑤ 성과 측정	이용자 수보다 업무 처리시간 등 실제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초기부터 측정 기준 설정	평가 기준
⑥ 운영	운영비·담당 조직 등을 고려해 시범 적용을 실제 업무로 연결하고,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	개선 지속 / 평가 기준

자료: 코오롱베니트, 「AX BOOST SUMMIT 2026」 발표 내용('26.10.13.) 및 관련 보도 종합·재구성
※ 단계별 세부 활동과 AX 전환 조건의 연결은 본 브리프의 분석 기준에 따라 정리

시사점

업무 성과 중심의 AX 전환을 위한 기업 대응과 정책 지원 방향

기업은 투자 기준을 사용량에서 검증된 업무 성과로 바꾸고 부문별로 책임을 분담

- AI 도입 효과는 도구 성능보다 업무 운영 방식을 함께 바꿨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기업의 투자 판단 기준도 사용량이 아닌 업무 완료 시간과 절감 시간의 활용 결과로 옮겨갈 필요
- 사업 부문은 적용 업무 선정과 절감 시간 재배정을, 재무 부문은 총비용과 성과 확인 단계에 따른 확대·중단 판단을, 인사 부문은 검증·수정의 공식 업무화와 평가 반영을 맡도록 책임을 분담
- 투자 배분도 도구 구축과 이용료에 치우치기보다 검증·수정을 맡을 인력과 업무시간, 개선에 참여할 이유를 만드는 평가·보상 체계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

정책 지원은 도구 보급을 넘어 현장 개선 역량과 조직 지식의 축적으로 확대

- 시범 적용이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데이터 연계와 후속 지원의 부족에 있는 만큼, 정책 지원은 도구 보급과 초기 교육을 넘어 업무 담당자의 검증과 지속 개선 역량을 뒷받침할 필요
- 숙련 인력의 경험이 경쟁력인 제조업 등에서는 전문가의 판단 기준과 오류 사례를 평가 기준·데이터로 축적하도록 지원해, 모델이 바뀌어도 조직 고유의 운영 지식을 유지할 기반 확보
- 아울러 에이전트 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담당자·권한·실행 기록의 관리 체계를 참여 요건으로 두고, 성과도 도입 기업 수가 아니라 활용 지속과 업무 개선·확산으로 평가하도록 기준 정비

부록 1 사례 종합: AX 운영 방식과 확인된 효과

조정 축	사례	조정 항목	성과 단계		추가 확인 필요 사항
			① 처리시간·활용 수준	② 사업 성과	
(1) 업무 선정·흐름	마이크로소프트	업무 흐름	10영업일 → 2.5영업일	-	비용, 절감시간 활용처
	우버	업무 선정	15시간 → 30분 등	-	도입비, 재투입처
	오디세이	적용 범위	처리량 +1/3	프로젝트비 -37% (기존 방식 대비)	비교 기준 산정
(2) 판단 권한	젤리피시	승인 주체	3일 → 1일 이내	-	오류율, 품질
	DBS	판단 영역 분리	-30% 목표 (검증 중)	-	실적
	xAI	개입 시점	-	구매 건 -58%, 구독 비용 -$85.7k/년	순효과, 상대 업체
(3) 개선 지속	NE Health	지원·보상 체계	솔루션 141개 정착	-	솔루션별 효과
	LegalCo	지원·보상 부재	솔루션 3개, 전문가 80% 이탈	-	-
	레노버	개선 환류	사람 검토 범위 축소	번역비 -50%+ (공급사 변경 포함)	측정 기간, 물량 보정

자료: 참고자료 종합하여 재구성

참고자료

1) McKinsey, 'The State of AI: Global Survey 2026', (2026.08.25.)
https://www.mckinsey.com/capabilities/quantumblack/our-insights/the-state-of-ai
2) MIT Sloan, 'AI boosts worker productivity — but does that translate to final outputs?', (2026.09.02.)
https://mitsloan.mit.edu/ideas-made-to-matter/ai-boosts-worker-productivity-does-translate-to-final-outputs
3) MIT Sloan, 'Why some organizations turn AI experiments into business value while others quietly fail', (2026.09.09.)
https://mitsloan.mit.edu/press/why-some-organizations-turn-ai-experiments-business-value-while-others-quietly-fail
4) BCG, 'The Formula for Winning Enterprise AI Adoption in 2026', (2026.09.30.)
https://www.bcg.com/publications/2026/the-formula-for-agentic-ai-value
5) Gartner, 'Gartner Survey Finds Only 22% of Organizations Have Successfully Scaled AI Across Multiple Business Units', (2026.09.01.)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gartner-survey-finds-only-22-percent-of-organizations-have-successfully-scaled-ai-across-multiple-business-units
6) BCG, 'How Companies Use AI to Redesign How Work Gets Done', (2026.09.24.)
https://www.bcg.com/publications/2026/companies-use-ai-to-redesign-work
7) Dun & Bradstreet, 'AI ROI Grows, but Data Readiness Lags at Scale', (2026.07.28.)
https://www.dnb.com/en-us/newsroom/press-releases/dnb-survey-finds-enterprise-ai-returns-continue-to-advance.html
8) BCG, 'AI at Work: Why Strategy Matters More Than Tools', (2026.06.03.)
https://www.bcg.com/publications/2026/ai-at-work-why-strategy-matters-more-than-tools
9) EY, 'EY survey finds that autonomous AI implementation outpaces oversight, yielding an AI governance gap', (2026.09.15.)
https://www.ey.com/en_us/newsroom/2026/09/ey-survey-finds-that-autonomous-ai-implementation-outpaces-oversight-yielding-an-ai-governance-gap
10) MIT Sloan, '10 levers for shaping generative AI that truly improves worker performance', (2026.09.03.)
https://mitsloan.mit.edu/ideas-made-to-matter/10-levers-shaping-generative-ai-truly-improves-worker-performance
11) EY, 'EY Survey: C-Suites Pivot from AI Adoption to Unlocking Value as Escalating Token Costs Trigger Fiscal Scrutiny', (2026.07.28.)
https://www.ey.com/en_us/newsroom/2026/07/ey-survey-c-suites-pivot-from-ai-adoption-to-unlocking-value-as-escalating-token-costs-trigger-fiscal-scrutiny
12) Gartner, 'Gartner Says CFOs Must Take a More Disciplined Approach to Finance AI Investment', (2026.09.24.)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2026-09-24-gartner-says-cfos-must-take-a-more-disciplined-approach
13) Business Insider, 'McKinsey's Eric Kutcher Sees AI Aiding Workers Over Firms', (2026.10.09.)
https://www.businessinsider.com/mckinsey-ai-productivity-workers-companies-gains-2026-10
14) Microsoft, 'What we've learned from Microsoft's own AI transformation', (2026.09.17.)
https://blogs.microsoft.com/blog/2026/09/17/what-weve-learned-from-microsofts-own-ai-transformation/
15) LinkedIn, 'Agentic AI adoption is on fire at Uber, and it's changing the way we build...', (2026.07.07.)
https://www.linkedin.com/feed/update/urn:li:activity:7480381351699951616
16) Business Insider, 'Uber's CTO Bets on "Agentic Pods" to Make AI More Efficient', (2026.07.10.)
https://www.businessinsider.com/uber-cto-bets-on-agentic-pods-make-ai-more-efficient-2026-7
17) DBS, 'DBS scales agentic AI to transform way of working for corporate bankers, freeing up time for more strategic client engagements', (2026.08.19.)
https://www.dbs.com/newsroom/DBS_scales_agentic_AI_to_transform_way_of_working_for_corporate_bankers_freeing_up_time_for_more_strategic_client_engagements
18) Reuters, 'Mark Zuckerberg had a bold plan to replace Meta staff with AI. Here's how it imploded.', (2026.08.26.)
https://www.reuters.com/investigations/mark-zuckerberg-had-bold-plan-replace-meta-staff-with-ai-heres-how-it-imploded-2026-08-26/

참고자료

19) Cognizant, ‘Cognizant and Cognition put autonomous AI engineering into production at Odyssey Logistics, with a 37 percent net cost saving’, (2026.09.23.)
https://news.cognizant.com/2026-09-23-Cognizant-and-Cognition-put-autonomous-AI-engineering-into-production-at-Odyssey-Logistics,-with-a-37-percent-net-cost-saving
20) xAI, ‘Setting Grok Bot loose on procurement’, (2026.09.04.)
https://x.ai/news/grok-bot-procurement
21) LILT, ‘Webinar Recap: Lost in Translation? The New Rules for Global Brands Scaling at Speed’, (2026.06.04.)
https://lilt.com/blog/scaling-localization-brand-voice
22) LILT, ‘Lenovo eCommerce Builds for the Future with Translation Transformation’, (2026.10.14. 조회)
https://lilt.com/customer-stories/lenovo
23) 더밀크, '기술에 1달러 쓰면 조직에 5달러 써야… 맥킨지가 밝힌 AX 성공의 법칙', (2026.08.23.)
https://www.themiilk.com/articles/ae8cc3a2c
24) 연합뉴스, [AI픽] 코오롱베니트 대표 "AI 도입만으론 생산성 안 높아져"', (2026.10.13.)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103800017
25) 전자신문, “AI 도입을 경영 성과로”…코오롱베니트, 기업 AX 실행 전략, (2026.10.14.)
https://www.etnews.com/20261013000207

Ⅱ. 주요국 동향

1 미국, 60억 달러 이상 규모 과학 이니셔티브 패키지 발표

트럼프 행정부,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한 범국가적 연구체계 개편 방향 제시

백악관, 4대 과학기술 분야에 걸친 민관 공동 투자·지원 계획 제시

- 백악관은 '과학: 새로운 황금시대 정상회의(Science: A New Golden Age Summit)'에서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범국가적 과학 이니셔티브 패키지를 발표 ('26.10.8.)
- 패키지는 △초지능(SI) 인프라 △능력 중심 인재 육성 △국가 전략 연구과제 추진 △신규 연구기관 설립의 4개 분야로 구성, 연방 예산에 기업·대학·주정부·자선단체 재원을 함께 묶은 점이 특징

  * 초지능(Super Intelligence, SI) : 트럼프 행정부가 '26.9.29. 행정명령(EO 14434)을 통해 연방 부처·기관의 공식 문서에서 AI를 대체하는 용어로 채택했으며, 대통령은 정상회의 당일에도 SI 명칭 사용을 강조

- 이 중 SI 인프라 분야와 국가 전략 연구과제 분야의 상당 부분은 '25년 11월 출범한 SI 과학 국가 미션 '제네시스 미션'의 확장이며, 인재 분야에도 같은 이름의 펠로십 사업이 포함

  *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26년 7월 15개 이상 연방기관으로 확대되며 50억 달러 연방 투자 약속

연구환경 변화와 기존 연구체계 개편 필요성, 과학 이니셔티브의 배경으로 부각

- 이는 연구환경 변화에 맞춰 연방 연구체계를 개편하려는 구상의 구체화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크라치오스 국장이 '26년 7월 발표한 「과학: 새로운 황금시대」 보고서에 기반

  * 「Science: A New Golden Age」: 트럼프 대통령이 '25년 3월 제시한 3대 지시(△기술 리더십 강화 △신기술 혜택 확산 △연구체계 재활성화)에 따라 작성

-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민간 기초연구 자금 비중이 5배 증가하고 연구·개발이 선형에서 순환형으로 변했다고 진단, 1945년 바네바 부시 보고서에 기반한 정부 중심 지원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

  * 바네바 부시의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원자폭탄 개발을 관리한 과학자 바네바 부시가 1945년 트루먼 대통령에게 낸 보고서로, 정부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를 지원하는 오늘날 美 연구체계의 토대가 된 문서

- 아울러 SI가 과학 연구방식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음에 따라, 연구 도구·인력·조직을 SI 활용을 전제로 재구성하는 방향을 이번 4개 분야 전반에 반영

표 크라치오스 보고서의 美 연구환경 변화 진단

구분	1945년 부시 모델	크라치오스 보고서의 현재 진단
연구 재원·주체	연방정부의 기초연구 지원과 대학 연구를 기반으로 산업계의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구조	민간·자선 부문의 기초연구 참여 확대 및 정부·산업계·학계의 협력 필요성 증대
연구개발 구조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기술개발의 선형적 구조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이 상호작용하는 순환형 구조
정부의 역할	대학·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변화한 민간 연구역량을 고려한 정부 지원방식 재설계

자료 : OSTP 보고서 『Science: A New Golden Age』('26.7.21.) 및 OSTP 국장 연설문('26.10.8.) 재구성

美 과학 이니셔티브 패키지의 주요 내용: 연구 역량 강화와 연구체계 혁신

(1) 과학 연구 역량 강화: SI 인프라 확충과 단계별 과학기술 인재 육성

▣ 제네시스 미션 연구 기반, 민간기업의 24억 달러 지원 서약과 연방 데이터 연계로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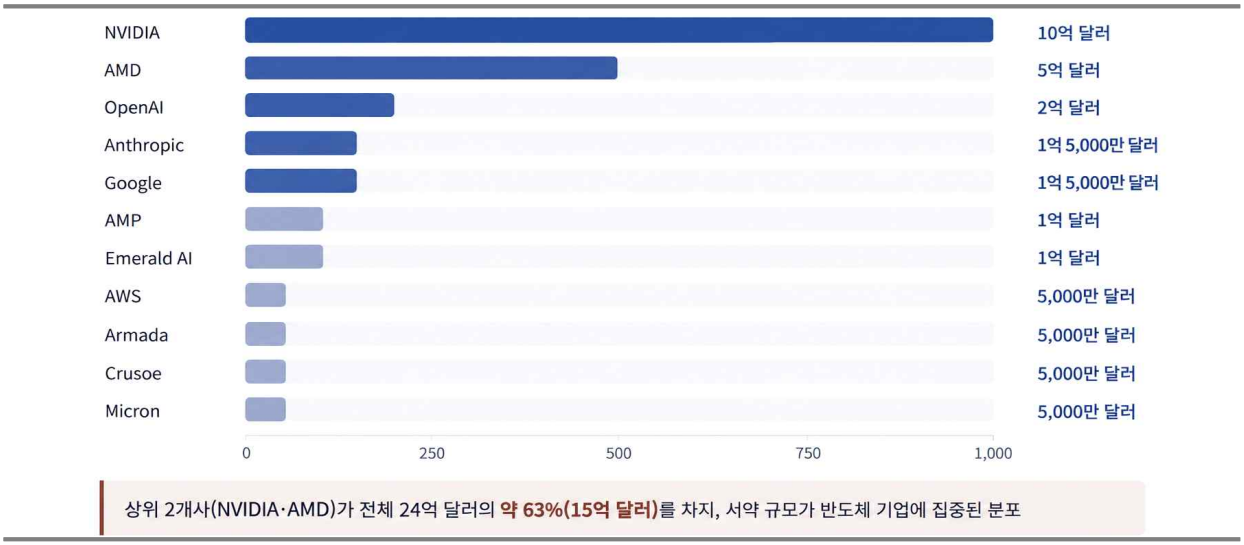
- 제네시스 미션의 SI 인프라 확충은 크라치오스 국장이 첨단 과학 연구에 고성능 컴퓨팅이 필수적이지만 학계·공공 연구실에서는 관련 자원이 특히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서 출발
- 이에 엔비디아(10억 달러), AMD(5억 달러), 오픈AI(2억 달러) 등 11개 기업이 제네시스 미션 컨소시엄 지원에 총 24억 달러 규모의 SI 과학 도구와 컴퓨팅 크레딧 제공을 서약
- 서약 기업에는 반도체·AI 모델·클라우드 사업자가 고르게 분포, 각 기업은 자사의 주력 자원을 연구 현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지원 기간과 제공 형태가 기업마다 상이

  * 엔비디아는 5년간 국립연구소 신규 시스템 7기 구축을 지원하고, 앤트로픽은 3년간 수백 개 과제에 클로드 이용권과 교육을 제공하며, 크루소는 3년간 연산·추론용 클라우드 크레딧 공급한다고 발표

- 컴퓨팅 자원과 함께 데이터 기반도 정비, 에너지부(DOE)는 미션의 공동 연구 기반인 '과학안보 플랫폼(ASSP)'을 통해 14개 연방기관에 분산된 데이터셋 190개를 연계하는 작업에 착수

  * 과학안보 플랫폼(ASSP) : 제네시스 미션의 4대 축 중 하나로,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와 실험 시설, AI 시스템, 고유 데이터셋을 하나로 묶어 연구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방 공동 연구 기반

그림 Genesis Mission 컨소시엄 기업별 서약 규모



자료 : 백악관 Fact Sheet 재구성

▣ 민간 서약과 별도로 연방·주정부 차원의 자율실험실·지역 컴퓨팅 거점도 확충

- 민간 서약과 별도로 국립과학재단(NSF)·DOE는 자율실험실과 SI 연구 장비에 1억 달러 이상 투자, 연구자 누구나 원격으로 실험을 맡길 수 있는 전국 단위 연구 체계 구축에 착수

- 주정부·대학 주도의 지역 거점도 함께 출범, 남동부 10개 주 14개 이상 대학·기관 컨소시엄과 조지아 10억 달러 투자 등으로 지역 연구자의 첨단 컴퓨팅 접근성을 확대
- 연방 기관과 주정부·대학이 각자 연구 기반 확충에 나서면서, SI 연구 인프라가 민간 서약을 넘어 연방·지역 단위로 함께 넓어지는 흐름

제네시스 미션 펠로십 등 조기 발굴부터 초기 경력까지 인재 육성 경로 개편

- 행정부는 연방 연구개발 전반에 다양성 기준 대신 능력 중심 원칙을 적용하고, 초·중등 단계의 재능 발굴부터 박사 과정 단축과 초기 경력 연구자 지원까지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을 개편
- 이 중 DOE는 제네시스 미션 이름을 단 인재 사업으로, SI와 다른 과학·공학 분야 역량을 함께 갖추는 1억 달러 규모 4년제 박사 펠로십과 고교생 대상 국립연구소 연구 펠로십을 신설
- 이와 별도로 NSF는 '86~'96년 운영했던 Young Scholars 프로그램을 재개해 수학적 재능을 갖춘 초·중등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사·박사를 6년에 마치는 통합 과정도 신설
- 미국 국립보건원(NIH)도 초기 경력 과학자 100명을 내부 연구 프로그램에 영입하는 Generation Discovery를 시작해, 젊은 연구자의 조기 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

  * 크라치오스 국장은 젊은 과학자의 독립 연구 진입이 늦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NIH 첫 연구비 수혜자 중 35세 미만 비중이 '80년대 22%에서 '25년 1.3%로 하락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

(2) 과학 연구체계 혁신: 국가 전략 연구과제 추진과 연구조직 개편

국가 미션 체제 복원, 제네시스 미션 중심으로 SI·양자·핵융합·우주·바이오 혁신 추진

- 백악관은 맨해튼 프로젝트·아폴로 계획을 국가 임무형 연구의 선례로 제시하며, 정부가 핵심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산업계·학계의 역량을 결집하는 방식을 과학정책의 기조로 강조
- 이에 행정부는 SI 분야의 제네시스 미션과 병렬로 양자·핵융합·우주·바이오 분야를 국가 미션으로 지정했으며, 양자·바이오 미션에는 '퀀텀 제네시스', '바이오 제네시스' 등 같은 브랜드를 부여

  * 제네시스 미션 대상 분야 : '25.11. 행정명령(EO 14363)은 첨단 제조·바이오·핵심 소재·핵분열·핵융합 에너지·양자 정보과학·반도체를 우선 분야로 지정했으며, '26.8. NASA·DOE 공동의 우주 분야 과제도 추가

- 양자 분야에서는 DOE가 8대 우선 응용과제와 함께 최대 2억 1,500만 달러 규모의 Quantum Genesis Q 경쟁을 발표, 현 행정부 임기 내('28년) 실용 양자컴퓨터 시연을 목표로 제시
- 우주 분야는 NASA·DOE가 '28년 원자력 추진 화성행 우주선 발사와 달 표면 첫 원자로 설치를 위한 협력에 합의, 바이오 분야는 NIH·DOE·Biohub가 18억 달러 규모 가상 생물학 이니셔티브 출범

독립 연구조직과 실험 기반 연구비 제도로 연구 지원 방식 혁신

- 행정부는 연구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연구 수행 조직과 연구비 배분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단계로 나아가, 기존 학과·심사 제도에 맞지 않는 연구를 위한 새로운 조직과 지원 방식을 함께 도입

- 기존 학과 구분과 일반 연구비 체계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전담하는 독립 연구조직 X-Labs를 조성하고, 산업계·자선단체로부터 3억 1,000만 달러 이상의 민간 지원을 확보해 연구 장비·시설을 제공
- 아울러 연구비 선정·심사 방식 자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메타사이언스 도입, 골든 티켓·분산 심사·이중맹검 심사 등 새로운 방식을 시범 운영하며 기존 연구비 배분·평가 체계의 개선 방향 모색

* 메타사이언스 : 연구비 배분·심사 방식을 실험으로 검증하는 접근으로, 골든 티켓은 고위험 제안에도 선정 기회를 주는 방식, 분산 심사는 여러 심사자에게 평가를 나눠 맡기는 방식, 이중맹검 심사는 연구자·심사자 신원을 서로 가리고 평가하는 방식

시사점

美, 연구 역량 확충과 연구체계 개편을 결합한 과학정책 패키지 추진

제네시스 미션 중심으로 연구 자원·인재·국가 미션 연계

- 이번 패키지는 제네시스 미션을 중심축으로 SI 인프라·인재 육성과 양자·바이오·우주 등 국가 미션을 하나의 범정부 체계로 묶고, 연구조직과 연구비 지원 방식 개편까지 함께 제시
- 정부가 국가 차원의 목표와 틀을 정하고 기업·대학·주정부·자선 부문이 자원과 역량을 보태는 방식이 전 분야에서 반복되며, 정부 중심이던 美 연구지원 체계가 민관 공동 투자 형태로 이동

민간 서약의 실질적 이행과 '28년 성과 목표 달성 여부가 정책 실효성의 관건

- 기업별로 지원 기간과 제공 형태가 다른 만큼 각사의 서약이 실제 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자원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며, 민간 자원의 실질적 활용 수준이 정책 집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양자·우주 분야의 국가 미션 모두 '28년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현 행정부 임기 내 가시적 성과 여부가 국가 미션 방식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

참고자료

1) The White House, Fact Sheet: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s the Most Ambitious Set of Science Initiatives This Century, 2026.10.8.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10/fact-sheet-trump-administration-announces-the-most-ambitious-set-of-science-initiatives-this-century/
2) The White House, Remarks by Director Michael Kratsios at the Science: A New Golden Age Summit, 2026.10.8. https://www.whitehouse.gov/remarks/2026/10/remarks-by-director-michael-kratsios-at-the-science-a-new-golden-age-summit/
3) Anthropic, Building on our commitment to American scientific discovery, 2026.10.8. https://www.anthropic.com/news/genesis-mission-commitment
4) Crusoe, Crusoe Pledges $50M in AI Compute to White House Initiative, 2026.10.8. https://www.crusoe.ai/resources/newsroom/crusoe-pledges-50-million-in-compute-to-white-house
5) The Washington Post, Trump to tout innovation 'Golden Age' amid funding cuts, researcher exodus, 2026.10.8.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6/10/08/trump-tout-innovation-golden-age-amid-funding-cuts-researcher-exodus/
6) Axios, Exclusive: Inside Trump's AI science summit, 2026.10.7. https://www.axios.com/2026/10/07/exclusive-inside-trumps-ai-science-summit

2 중국 '신질생산력 발전 의견' 발표, 기술 자립과 투자 통제 병행

기술 육성에 중복 투자 교정까지 담은 국가 행동지침

과학기술 혁신부터 인재까지 5개 분야 19개 중점 과제를 제시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신질생산력 발전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 과학기술 혁신을 선두에 세워 전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국가 행동지침을 제시 ('26.10.9.)

  *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 과학기술 혁신이 주도해 노동자·노동수단·노동대상 등 생산 요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생산 능력을 뜻하는 중국 공식 용어로, 투입을 늘려 양을 키우는 기존 방식과 대비되는 개념

- 이번 지침은 △과학기술 혁신 △산업 융합 △발전방식 혁신 △체제 개혁 △인재 육성 등 5개 분야에 19개 중점 과제를 담으며 기술 돌파와 산업의 질적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

- '2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개념이 3년 만에 당·정 최고위 공동 문건으로 격상된 것으로, 15차 5개년 규획과 연계돼 향후 5년 경제정책의 주요 축이 될 전망

  * 15차 5개년 규획('26~'30년)의 중대 프로젝트 109개 중 28개가 이번 지침의 과제와 연계

현장의 투자 쏠림을 바로잡는 교정이 지침의 발표 배경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발표 배경으로 현장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 문제들을 지목하고, 이번 지침이 육성책이자 잘못된 투자 흐름을 바로잡는 교정 문서임을 공식 확인

- △신흥산업만 좇아 전통산업을 경시하는 쏠림 △개혁보다 발전만 중시하는 경향 △여러 지역이 같은 산업에 앞다퉈 뛰어드는 중복 투자가 3대 문제로 적시되며, 이 중 쏠림·중복 투자가 핵심 교정 대상

- 로이터 등 외신은 미국과의 기술 경쟁 속에 자립은 서두르되 투자 거품은 억제하려는 이중 목적의 지침으로 해석, 이 병행 구도가 지침의 4대 조치를 관통하는 공통 축

기술 자립 가속과 투자 과열 차단, 지침의 4대 조치

(1) (핵심기술 자립) 총동원 체제 아래 기술 과제의 주도권은 기업으로 이동

독창적 혁신부터 성과의 생산력 전환까지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 배치

- 4대 조치의 첫째인 핵심기술 자립에서는 △독창적·파괴적 혁신 강화 △핵심기술 돌파 가속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 통합 구축 △성과의 생산력 전환 가속을 핵심 과제로 제시

- 핵심기술 돌파에는 '신형거국체제'를 적용해 기술 개발부터 생태계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며, 처음 출시된 국산 제품은 구매·적용 정책으로 시장 안착과 성능 개선을 뒷받침

  * 신형거국체제(新型举国体制) : 국가가 목표를 정하면 정부·기업·연구기관의 자원을 한곳에 모아 집중 투입하는 중국 특유의 총동원 방식

- 핵심기술은 '사 올 수도 얻어 올 수도 없다'는 NDRC의 인식이 전체 구상의 출발점으로, 미국과의 기술 경쟁 속에 자급 사슬 구축에 국가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을 시사

> 민영기업이 국가 중대 과제를 이끌고 성과는 시장이 판정

- 총동원 체제라는 틀은 유지하되 혁신을 실제로 이끌 주체로 기업을 앞세운 점이 이번 설계의 핵심 변화로, 역량을 갖춘 민영기업이 국가 중대 기술 과제를 직접 이끌도록 지원한다고 명시
- 기업이 연구개발 자금을 미리 쌓아 두는 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며, 국가 전략에 맞는 기업 과제는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해 지원하는 길도 마련
- 연구 성과는 논문 실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평가로 판정하는 체계를 도입해, 정부가 기획하고 기업이 따라가던 관행이 시장이 검증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신호로 해석

⑵ ('AI 플러스' 전면 실시) 전 산업 확산의 가속과 안전 통제를 동시 규정

> 전통산업 개조와 지능형 단말 보급이 'AI 플러스(AI+)' 확산의 두 축

- 핵심기술 자립이 기술 확보 조치라면 'AI+' 행동은 이를 전 산업에 접목하는 확산 조치로,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스마트 커넥티드카·AI폰·휴머노이드 등 지능형 단말의 현장 응용을 앞당길 계획
- 완비된 산업 체계와 거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응용 현장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쓰면서 기술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지역·업종별 국가 AI 응용 시험 기지도 배치
- AI를 신질생산력의 핵심 버팀목으로 규정하며, 전문가들은 AI가 단일 도구를 넘어 연구·생산의 기초 인프라가 되어 신약 개발 등의 기간·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통제 가능한 AI가 확산의 전제 조건

- 확산 일변도가 아니라 같은 조항 안에 기술 감시와 위험 조기경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함께 규정하여, '안전·신뢰·통제 가능'을 AI 응용 전반에 적용되는 관리 원칙으로 명문화
- NDRC는 AI의 기술 돌파와 대규모 상용화를 장기 복합 과제로 규정하고, 법규와 윤리 기준 정비부터 컴퓨팅 기반과 인재 확보까지 단계별 보장 장치를 함께 설계

⑶ (맹목 투자 차단) 거품·공동화 금지에 간부 문책 경고까지 명시

> 자금의 실물 이탈부터 정책 남용까지 금지 대상을 폭넓게 설정

- 기술 자립과 AI 확산을 가속하는 앞선 조치와 짝을 이뤄, 당국은 실물경제 우선 원칙 아래 자금이 실물을 떠나 금융 투기로 쏠리는 행태와 거품 조장을 막고 산업 공동화 방지를 각급 정부에 주문
- 신질생산력을 명분 삼은 정책 남용을 엄금하며, 유행을 좇는 쏠림 투자나 맹목 투자로 중대한 손실이 나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명시해 간부 개인까지 겨냥한 경고를 포함

- 통제는 투자 영역에 그치지 않고 반독점·부당 경쟁 단속 강화와 데이터 기반 합동 감독 도입으로 이어져, 감독 범위가 투자를 넘어 시장 제도 전반으로 넓어지는 구조

신·구 성장 동력의 교체와 지역 배치에는 선립후파·지역 맞춤 원칙을 적용

- 당국은 새 성장 동력이 자리 잡은 뒤에 기존 산업을 질서 있게 정리하라는 선립후파(先立后破) 원칙을 앞세워, 성급한 구조조정이 낳을 성장 단절과 산업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을 제시
- 지역마다 여건에 맞게 산업을 고르라는 원칙도 함께 담아 전국 곳곳이 같은 업종에 겹치기로 투자하는 낭비를 막고, 신흥 산업 안에서 소모적인 출혈 경쟁이 번지지 않도록 관리를 주문
- NDRC는 해당 원칙이 현장 착오를 바로잡는 장치라며 정책이 방향을 잃거나 무리하게 내달리거나 거품으로 번지는 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

(4) (인내자본 확충) 기술기업 자금 조달 통로는 전방위로 확대

정부 펀드를 토대로 민간 자금을 유도

- 당국은 정부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삼아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육성을 장려하고, 초기 기술기업에 길게 투자하는 자본을 뜻하는 '인내자본'을 키우는 지원책을 보강할 계획
- 은행에는 신질생산력의 특성에 맞는 대출상품 개발을 주문하고 과학기술 혁신 채권을 늘리며, 우수 기술기업의 상장과 인수합병 및 지분 보상 제도를 정비해 자금 조달 통로를 확충
- 연구개발에 대규모 자금과 긴 시간이 드는 첨단 기술의 특성을 감안한 장기 지원 설계로 풀이되며, 단기 성과를 재촉하기보다 자금이 끊기지 않게 받치는 데 무게를 둔 모습

보험과 리스에 외국 자본까지 더해 기술금융의 저변을 확대

- 혁신의 전 과정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장비를 빌려 쓰는 과학기술 리스 사업을 새로 시도하는 등, 실패 부담이 큰 기술 개발의 위험을 금융이 나눠 지는 장치도 마련

  * 과학기술 리스(科技租赁) : 기업이 고가의 연구·생산 장비를 사들이는 대신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이 부족한 기술기업의 장비 투자 문턱을 낮추는 금융 서비스

- 자금 조달 창구는 국내에 머물지 않아 외국계 벤처캐피탈의 중국 내 활동을 장려하고,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해외 자본과 선진 생산 요소를 끌어모으는 개방 조치도 병행
- 펀드·대출·채권·보험으로 창업 초기부터 성숙 단계까지 전 구간을 금융이 받치는 체계가 갖춰지며, 앞선 투자 단속과 맞물려 자금의 흐름을 가려내 공급하는 선별 장치로 기능

총동원식 설계에도 곳곳에 남은 공백과 변수

목표 수치와 지원 규모 없이 방향만 제시한 한계 존재

- 이번 지침에는 달성 시한이나 투자 규모 같은 구체적인 숫자가 담기지 않아, 큰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설계는 후속 조치에 넘기는 방향 제시형 문건의 성격이 뚜렷하다는 평가
- 실행은 각 지역과 부처가 여건에 맞게 맡고 중앙재경판공실과 NDRC가 조율과 점검을 담당하는 구조여서, 체감 효과는 지방·부처가 내놓을 후속 세부 대책의 수준에 좌우될 전망

  * 중앙재경판공실(中央财经委员会办公室) : 당 중앙재경위원회의 실무 기구로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 조정

- 쏠림과 중복 투자 조짐은 이미 당국이 인정한 문제여서, 지침 발표만으로 현장 관행이 바뀔지는 지방의 이행과 15차 5개년 규획 중대 프로젝트의 구체화 과정을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한계가 상존

가속과 제동의 공존이 집행 긴장을 유발

- 자립을 서두르라는 주문과 손실 시 문책하겠다는 경고가 한 지침에 공존하여, 일선에서는 투자 확대와 신중론 사이에서 수위를 가늠해야 하는 긴장이 생기는 구조라는 점도 과제
- 강한 문책 경고는 과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지방 간부가 책임을 피하려 투자 자체를 미루는 보수화로 이어질 수 있어, 육성과 단속 사이의 균형 운영이 관건이 될 전망

시사점

AI 경쟁 축 이동과 중국 기준 확산에 대응 필요

응용 주도 전략으로 AI 경쟁의 축이 단말과 현장으로 이동

- 이번 지침의 본질은 기술 확보 경쟁에 응용과 생산성 향상의 단계를 더한 것으로, 모델 성능 대결 중심이던 AI 경쟁에서 지능형 단말과 산업 현장이 중국의 새 경쟁 축으로 설정된 계기
- 국내 산업계는 스마트카·로봇 등 중국이 응용을 넓히는 품목에서 경쟁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품목별 시장 기회와 국산 대체에 따른 공급 축소 위험을 가려내 사업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

안전·선별 규범의 제도화로 신뢰 역량이 경쟁 요소로 부각

-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AI 원칙과 선별적 자금 공급이 제도화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는 기술력과 별개로 안전 검증과 규범 적합성이 사업 지속의 전제 조건이 되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
- 해외 기업에는 중국 기준과 자국·국제 기준 간 적합성 확보가 새 변수가 되며, 국내 정책도 안전·선별 규범과 인내자본·기업 주도 연구개발의 결합 방식을 참고해 지원 제도에 반영할 필요

참고자료

1) Reuters, ‘China vows to curb tech bubbles, keep AI risks in check’ (2026.10.09.)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issues-guidelines-new-productive-forces-including-ai-2026-10-09/
2)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issues guidelines on developing new quality productive forces’ (2026.10.09.) https://english.www.gov.cn/policies/latestreleases/202610/09/content_WS6ac8d93ec6d00ca5f9a0d95c.html
3) 新华网(Xinhua), '受权发布丨中共中央 国务院关于发展新质生产力的意见' (2026.10.09.) https://www.news.cn/politics/zywj/20261009/f4bdabfe2bfa489fbeaf6d57bac21c22/c.html
4) 新华网(Xinhua), '国家发展改革委有关负责人就《关于发展新质生产力的意见》答记者问' (2026.10.09.) https://www.news.cn/politics/20261009/bc927827c7c04201a75a81ad7a29574d/c.html
5) 이데일리(Edaily), ‘중국 당정, 신질생산력 본격 추진…금융·세제 지원 늘린다’ (2026.10.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5063?sid=101
6) 央视网(CCTV), '事关新质生产力，中共中央、国务院重磅发布！' (2026.10.10.) https://finance.cctv.com/2026/10/10/ARTIbSixmGJhn6SEdMOAZaCn261010.shtml
7) 每日经济新闻(NBD), '《关于发展新质生产力的意见》印发' (2026.10.11.) https://www.nbd.com.cn/articles/2026-10-11/4601044.html

Ⅲ. ICT 부문별 모니터링

구 분	품 목	주요 이슈	영 향
ICT 융합기술	글로벌 패권 경쟁 및 공급망 재편	**미국, 연방 AI 전담조직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 신설하며 기술 주도권 강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AI 정책을 조율하는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Super Intelligence Force)'를 신설하고 국가정보국장 제이 클레이턴을 책임자로 지명. 연방거래위원회·국방부·인사관리처 주요 인사가 참여하며 AI 개발과 활용 전반의 정부 협력 체계 구축 및 미국의 기술 주도권 유지 추진. 주요 AI 기업들과 자율적 기술 관리 협약을 체결한 이후 발표된 조치로, 소비자·공익단체·핵심 인프라 운영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계획. 다만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정책 집행 방식은 불확실하며, 미국 주도의 AI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국내 AI 산업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 증대	중립적
반도체 & 양자	디바이스	**MS·엔비디아, 차세대 AI PC 공개하며 온디바이스 AI 경쟁 확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RTX 스파크' 칩을 탑재한 서피스 랩톱 울트라와 개발용 워크스테이션을 공개하며 고성능 온디바이스 AI 시장 공략 강화. 노트북은 2,600달러와 3,700달러부터, 개발용 장비는 6,000달러부터 판매하며 CPU·GPU·통합 메모리와 냉각 기술을 활용한 로컬 AI 모델 실행 지원. 윈도11에는 AI 에이전트의 실행 환경을 격리하는 '실행 컨테이너' 기능을 도입해 보안성과 개발 편의성 강화 추진. 높은 초기 구매 비용과 실제 활용성이 보급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며, AI PC의 고성능화에 따른 국내 메모리·반도체 부품 수요 확대 기대	중립적
방송 & 전파 & 위성	우주경제	**알파벳, 우주 기반 AI 컴퓨팅 위한 TPU 칩 궤도 시험 착수** 알파벳이 10월 2일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을 통해 자체 AI 가속기 TPU를 저궤도에 발사하며 우주 기반 AI 컴퓨팅 실증 착수. '프로젝트 선캐처'의 첫 궤도 시험으로, 위성 영상 기업 플래닛이 우주 플랫폼 제작·운용을 담당하며 초기 교신 및 정상 작동 확인. 구글은 TPU의 높은 탄소 효율을 기반으로 전력·냉각 제약이 큰 우주 환경에서 AI 연산 인프라 구축 가능성 모색. 다만 방사선 내구성과 우주 환경 적응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상용화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 경쟁 확대 전망	중립적
보안 & 블록체인	차세대 보안	**앤트로픽, 고성능 AI 보안 모델 접근 확대하며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 앤트로픽이 검증된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성능 AI 모델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이버 검증 프로그램(CVP)' 개편 발표. 기존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 기관들은 4~7월 최소 12만9,000건의 검증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했으며, 이 중 3만 3,000건 이상이 심각도 높음 또는 치명적 수준으로 분류. 개편 프로그램은 방어·레드팀·특수 분야의 3단계 접근 체계로 구성되며 클로드 오퍼스 5.5·소넷 5.5·미토스 5.1 등 활용 지원. AI 기반 취약점 탐지와 보안 자동화 확산이 기대되나, 고성능 모델의 악용 방지를 위한 이용자 검증과 접근 통제 중요성 확대	중립적
콘텐츠 & 미디어	IT 플랫폼	**메타, AI 에이전트 '뮤즈'에 쇼핑·결제 통합하며 커머스 시장 공략** 메타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Muse)'에 상품 검색·추천·결제 기능을 통합하며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확대 추진. 월마트·갭·세포라·베스트바이 등 주요 유통업체와 제휴하고 스트라이프 링크·쇼피파이 숍페이를 연동해 사용자 승인 기반 결제 지원. 아마존은 고객정보 수집과 무단 데이터 접근 우려를 이유로 뮤즈의 구매 활동을 차단했으며, AI 기반 개인화 가격책정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확산. 향후 결제 보안과 유통사 간 접근 정책 조율이 시장 확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고객 접점 확보 경쟁 심화 전망	중립적

구 분	품 목	주요 이슈	영 향
인공지능 & 데이터	인공지능	**메타·월마트 등, AI 에이전트 기업 접근 위한 개방형 표준 개발 추진** 메타·월마트·스트라이프·시에라 등이 개인용 AI 에이전트와 기업 서비스 간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개방형 '개인 에이전트 프로토콜' 발표. 해당 표준은 AI 에이전트의 신원 인증, 접근 권한 관리, 활동 추적을 통해 기업 시스템 내 정보 접근과 자동화 업무 수행의 신뢰성 확보 목표. 메타 뮤즈 등 개인용 AI 에이전트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아마존 등 일부 플랫폼의 접근 차단으로 공통 기술 규범 마련 필요성 증대. 다만 오픈AI·앤트로픽 등 주요 기업의 참여 여부는 미정으로, 향후 표준 확산과 글로벌 AI 에이전트 생태계 주도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	중립적
	초거대 인공지능	**프랑스 미스트랄, 1조 매개변수 개방형 AI 모델 공개하며 중국에 도전** 프랑스 미스트랄이 1조개 매개변수 기반의 차세대 AI 모델 '미스트랄 라지 4(ML4)'를 공개하며 중국 중심의 개방형 AI 모델 시장에 도전. 유럽 자체 데이터센터에 구축된 엔비디아 그레이스 블랙웰 GPU 4,000개를 활용해 2개월간 학습했으며 보안·코딩·제조·금융·멀티모달 분야의 높은 활용성 강조. 미스트랄은 중국 외 지역에서 개발된 최고 수준의 오픈웨이트 모델로 평가했으나 코딩 등 일부 성능에서는 최상위 모델과 격차 존재. 개발자·보안 전문가·정부기관 대상 사전 공개 후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며 글로벌 개방형 AI 모델 주도권 경쟁 심화 전망	중립적
	인공지능	**구글, 기업 업무 자율 수행하는 통합형 제미나이 AI 에이전트 공개** 구글이 기업 업무를 자율 수행하는 통합형 제미나이 AI 에이전트를 공개하며 대화형 AI에서 업무 실행형 서비스로 전환 가속화. 사용자의 목표를 기반으로 작업 계획 수립과 도구 활용, 하위 에이전트에 업무 위임이 가능하며 구글 워크스페이스·마이크로소프트 365·슬랙·지라 등 기업 시스템과 연동. 독립적인 업무 계정과 실행 이력 기록 기능을 통해 협업과 관리 체계를 지원하며, 초기 기업 고객 적용 후 일반 소비자로 서비스 확대 계획. 보안·확장성·성능 검증이 향후 도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기업용 AI 플랫폼 경쟁 심화 전망	중립적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제미나이 다중 AI 모델 운영·비용 관리 기능 강화로 기업 시장 공략** 구글이 기업용 제미나이 에이전트에 다중 AI 모델 선택과 비용 관리 기능을 도입하며 AI 기반 업무 운영 플랫폼 경쟁력 강화. 작업 특성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자동 선택하거나 앤트로픽 클로드 등 타사 모델을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향후 오픈소스 및 기업 전용 모델로 지원 범위 확대 계획. 다중 모델 오케스트레이션과 지능형 경로 지정, 실시간 지출 상한 기능을 통해 기업의 AI 활용 비용 최적화 추진. AI 에이전트의 기업 시스템 접근에 따른 보안 관리와 모델 간 연동 안정성이 확산 변수로 작용하며, 국내 클라우드·AI 서비스 기업의 플랫폼 운영 역량 고도화 필요성 증대	중립적
통신 & 네트워크	네트워크	**업스케일 AI, 이종 AI 칩 연결 플랫폼 '토큰 패브릭' 공개** 엔비디아 투자사 업스케일 AI가 서로 다른 제조사의 AI 칩을 단일 데이터센터에서 연결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토큰 패브릭(Token Fabric)' 공개. 자체 네트워크 칩과 엔비디아 스펙트럼-X 기반 장비, 병목 현상 탐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데이터 전송 지연을 줄이고 고가 AI 가속기의 활용 효율 극대화 추진. 2026년 4분기 AI 칩 집합 간 연결 기능을 우선 출시하고 2027년까지 전체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 다중 공급업체 칩을 활용하려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수요 확대가 개발 배경으로, 실제 성능 검증과 상용화 성과에 따라 국내 AI 반도체의 데이터센터 시장 진입 기회 확대 가능성	중립적

Ⅳ. 주요 ICT 행사 일정

■ 해외 전시회, ■ 국내 전시회

10/12	10/13	10/14	10/15	10/16
2026 미국 캘리포니아 오픈 컴퓨트 글로벌 서밋 [OCP] (장비), 미국 캘리포니아				
	2026 미국 캘리포니아 반도체 전시회 [SEMICON West] (반도체), 미국 캘리포니아			
	2026 일본 지바 첨단기술 종합 전시회 [CEATEC] (디지털 전환), 일본 지바			
	2026 한국전자전 [KES] (종합), 서울 코엑스			
		2026 반도체대전 [SEDEX] (반도체), 서울 코엑스		
10/19	10/20	10/21	10/22	10/23
2026 미국 라스베이거스 금융기술 전시회 [Money20/20 USA] (ICT 융합 서비스), 미국 라스베이거스				
		2026 일본 지바 IT 종합 전시회 [Japan IT Week] (종합), 일본 지바		
		2026 산업AI 엑스포 (인공지능), 고양 킨텍스		
		2026 국제 모빌리티 산업전 [KOAA] (자율주행차), 고양 킨텍스		
10/26	10/27	10/28	10/29	10/30
2026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국방 ICT 전시회 [TechNet Indo-Pacific] (차세대 보안), 미국 하와이				
	2026 독일 뉘른베르크 IT 보안 전시회 [it-sa] (차세대 보안), 독일 뉘른베르크			
		2026 미국 캘리포니아 깃허브 개발자 전시회 [GitHub Universe] (소프트웨어), 미국 캘리포니아		
		2026 스마트에너지플러스 (에너지 전환), 서울 코엑스		
11/2	11/3	11/4	11/5	11/6
2026 중국 홍콩 핀테크 위크·스타트미업HK 전시회 [HKFTW x StartmeupHK] (ICT 융합 서비스), 중국 홍콩				
	2026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세계 전시회 [SCEWC] (ICT 융합 서비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2026 AIoT 국제전시회 [AIoT Korea] (IoT), 서울 코엑스			
		2026 로보월드 [ROBOTWORLD] (로봇), 고양 킨텍스		

AI·ICT Brief

2026-35호 (2026.10.16)



본 저작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 'AI 유형(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개방하였으며, 기관 홈페이지(www.iitp.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본 내용은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